

때,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를 걸세.

“아저씨는 왜 내가 뭘지도 모르는 막연한 돈벌이를 좇아 가족을 떠나길 바라는 거예요? 한 개가 오십 개, 아니, 백 개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 발을 일구는 것보다 더 많이 남는 장사가 세상에 있을까요? 장사를 하고 싶다면, 내가 배를 타고 인도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남아도는 것들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우리 어머니들은 제게 도맹그가 늙고 몸이 많이 상했다고 말해요. 하지만 저는요, 저는 어리고, 매일같이 힘도 더 세지고 있습니다. 제가 없으면 그 사이에 가족들한테 무슨 사고밖에 더 생기겠어요? 특히 비르지니는 이미 몸도 편지 않은데 말이에요. 안 돼요, 싫어요! 가족을 떠난다니, 절대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없어요.”

그의 대답은 나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네. 이유인즉슨 라 투르 부인은 내게 비르지니의 상태가 어떤지 숨기지 않았고, 부인으로서는 두 사람을 떼어놓고 이 두 청춘남녀의 나이가 차기까지 단 몇 년이라도 벌어볼 심산이었기 때문이지. 그제 나로서는 풀이 한 치의 의심도 하게 해서는 안 됐던 이유였어.

그러는 동안 프랑스에서 배가 도착해, 라 투르 부인 앞으로 온 이모님의 편지를 전해주었다네.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지. 그 정도의 공포가 아니었다라면 그 딱딱한 마음이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. 이모